2021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

*** 추천후보자 명단은 확정자 명단이 아니며, 추후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**

소속	직급	성명	재직기간	주요 공적
식약처	행정주사	신동화	33년7월	의약외품, 화장품 등 제조업체 사후관리를 통한 제품 품질의 안전성 확보, 의약품 등 제조업체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수행, 위해사범 수사로 식·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함.
식약처	부이사관	양창숙	30년9월	국민의 나트륨·당류 저감화 등 균형잡힌 식습관 유도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, 식품안전나라 운영 등 먹을거리 위생·영양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전 예방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기여함.
식약처	식품위생 사무관	이경진	31년3월	적극행정을 통하여 코로나19 발생 전 선제적으로 마스크 품질검사기관을 지정·확대하여 마스크가 신속히 허가·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9 발생 긴급상황에 검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우수한 품질의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정부혁신 성과창출에도 기여함.
식약처	의료기술 사무관	이병희	31년10월	31년간 의료 및 의료기기 분야 정책 수립과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고시 제정, 제조 및 품질관리 심사 등을 통해 안전성 제고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.
식약처	식품위생주사	박영채	28년11월	28년간 국가공무원으로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특히, 식품안전관리 분야에서 수거검사 업무를 담당하며 멜라민 사건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데 기여함.
식약처	부이사관	김기만	26년8월	28년여 간 의약품 분야에서 사전·사후업무를 담당하며 한약분쟁, 의약분업, 규제개혁, GMP제도, 안전상비의약품제도, 바이오의약품 사전·사후 업무 등을 통하여 의약품 관리제도 발전에 기여함.
식약처	식품위생 사무관	박천수	27년10월	수입식품 분석 및 현장검사 시 효율적으로 업무 방법을 개선하고, 수입식품등 검사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식약처 홍보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.